

정승일은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2014)로 공간에 개입한다. 반사라고 하는 단순한 원리로 공간은 파편화되는데, 정사면체에 가까운 뿔, 침탑처럼 뾰족한 뿔, 그리고 납작하게 누운 뿔 등 여러 각도의 경사면에 부착된 거울들이 전시장 곳곳을 비춤으로써 예상치 못한 장면과 공간감을 만들어낸다. 현대미술이 유려한 언어와 이론으로 무장하곤 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미술을 추구한다고 한 바 있는 정승일은 절제된 작업 방식으로 오히려 관람자에게 직접 경험하고 사색할 여지를 준다.

Seung-il Chung intervenes the space by his work Where are you (2014). Fragments of space are simply reflected by the mirror in several different shapes and angles. Such reflection creates unexpectedly surprising scenes and spatial sense. His work provides a chance for the audience to directly experience and think. Chung avoids exaggerating his art with excessive language and theories, but rather makes it easy to comprehend.

글 Text: 이성휘 큐레이터 Curator Sunghui Lee

번역 Translate: 김유라 Yura Kim

Copyright © HITE Collection